

“좋은 책 펴내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

‘서울출판인포럼’ 초청 ... 문화관광부 신현웅 차관과의 만남

신현웅 문화관광부 차관은 지난 4월 14일 오전 조선히호텔에서 가진 ‘서울출판인 포럼’ 조찬회에 참석, 출판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문화부 내 출판관련 부서를 두루 거치면서 평소 출판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신차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좋은 책을 읽고 펴내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출판계 위기상황과 관련한 출판인들의 궁금증을 신차관과의 대화를 통해 들어본다.

이기웅(영화당 대표) — 출판정책의 방향은 문화부에서 원칙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타부처에도 출판지원의 가능성은 있으므로 행정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 입체적인 출판정책을 펴주길 바란다.

신현웅 차관 — 모든 문화의 기초는 출판이다. 출판정책 역시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좋은 책이 잘 안팔리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예산을 늘리는 일도 중요하다. 1만여개나 되는 출판사가 다 잘 되게 하기보다 좋은 책을 내는 출판사가 많이 나와 질 높은 문화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출판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제시해줘야 한다.

김경희(식산업사 대표) — 우리의 경우 TV를 통한 책소개 프로그램은 극히 적은데다 방영시간도 일요일 새벽 혹은 밤 12시 이후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다. 독서운동에서 방송 등 매체의 역할이 크다고 볼 때 책 읽는 프로그램 편성에 문화관광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는가.

신현웅 차관 — 방송정책 분야가 문화관광부에 들어왔으니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방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송편성 때 협조를 구하겠다. ‘책의 해’ 때 독서새물결운동을 벌였듯이, 신문·방송 등의 매체에서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한 작은 이벤트를 벌인다면 국민들에 대한 계몽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문화적 분위기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으므로 꾸준히 노력하겠다.

김병익(문학고지성사 대표) — 출판이 사회문화의 기간시설이라면 출판의 기간시설은 출판정보지다. 현재 출판계 유일한 출판정보지인 《출판저널》은 다른 나라에서도 부러워하는 고급서평지로 자리잡았다. 출판계 사정이 어렵다고 이런 출판정보지를 폐간한다면 내일이든 내일이든 내용이 변질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차관께서도 관심을 기울여달라.

신현웅 차관 — 《출판저널》은 나도 좋아하는 잡지다. 어떤 책이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일반인들에게 알게 해준다는 면에서 출판정보지, 서평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실무자에게 당부하겠다. 이와 관련해 한국학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되는 《한국학보》 같은 잡지의 휴간 소식도 안타까웠다. 국고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잡지들이야말로 우리 문화를 바로세우는 일꾼이라 생각한다. 출판계의 자율적인 방침 아래 이런 좋은 잡지들도 잘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박기봉(비봉출판사 대표) — 출판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은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소비의 측면에서 보자면 독서를 한 개인의 교양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명제로 생각해야 한다. 예컨대 매일 스포츠뉴스를 본다고 국민의 체력향상에 도움을 주지는 않지만, 매일 독서 뉴스를 한다면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현웅 차관 — 다른 상품과 달리 시장에 맡겨서는 좋은 책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기 힘들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책은 사회 기간산업시설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돼 있지 않아 생기는 문제는 당연히 정부예산을 들여 좋은 책 출간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칭 ‘출판혁신진흥기금’을 만든다면 좋은 책의 출간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김언호(한길사 대표) — 책은 개인의 취미 차원을 넘어선다. 정책을 통해 고급한 책, 문학성 있는 작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신현웅 차관 — 방송과 출판, 문화관광부 등 관계자들이 함께 모이는 만남의 자리를



신현웅 차관.

만들어, 제도화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러나 무엇보다 출판계 여러분의 구체적인 논리와 사례연구가 먼저 있어야 한다. 예컨대 BBC방송이나 프랑스 방송의 모범적인 독서프로그램을 집중연구해 우리가 도입 가능한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일이 필요하다. 출판인 스스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방송에서 독서 프로그램 정착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출판계에서 준비해달라. 또다른 제안을 한가지 한다면 서울국제도서전을 서울에서만 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요 지방도시를 순회하며 개최한다면, 전국에 독서붐을 일으키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병석(문예출판사 대표) — 문예진흥기금의 200억원 대출 등 출판계 긴급유자금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친 것으로 안다. 출판계는 사실상 담보능력이 없으므로 담보 없이 지원하고 정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 감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신현웅 차관 — 출판이 무너지면 전 문화가 다 무너진다. 사실 문예진흥기금 관련법에 ‘출판’의 사항은 빠져 있었다. 5, 6년 전 ‘출판’에도 용자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데 문예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 만나 설득하는 등 나도 많은 공을 들여왔다.

현재 추경예산을 끌어들이 200억원 유자금을 만들었으나 출판계가 물적 담보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유자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는 출판계 스스로 정해야 한다.

윤형두(범우사 대표) — 곧 차관 중심의 예산 편성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안다. 부처별 이기주의를 버리고 법무부, 국방부, 예산청 등 각 부처마다 독서문화를 위한 예산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신현웅 차관 — 행정자치구마다 선물성 예산이 책정돼 있다. 그런 예산을 예컨대 ‘도서상품권’의 구입으로 집행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또 그린벨트 내에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규에 반영시키기도 했다. 그런 면에서 조금씩 진전은 있고 여건도 나아지고 있다고 본다. 사실 예산편성 때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건설이나 그 위를 달리는 트럭, 트럭에 싣는 컨테이너는 외국 자본으로도 가능하지만 그 컨테이너에 실리는 내용물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소프트웨어에 정부가 투자할 때다. 정부예산 대비 문화부 예산 1%의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출판계 여러분도 도와달라. ❖